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편년 재검토

梁成赫 (국립중앙박물관)

I. 서론

한강유역과 인근 서해도서지방을 포함하는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의 편년은 7~80년대 한영희와 임효재에 의해 골격이 잡힌 이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한영희(1978)는 북한 고고학의 신석기시대 편년을 중서부지역에 적용하여 구분문계에서 동일문계로의 변화를, 임효재(1983)는 전면시문에서 시문면적의 축소화를 기준으로 이 지역 신석기시대 편년을 전·중·후기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두 견해는 전면 횡주어골문토기의 위치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서해도서 패총유적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후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지역 신석기시대 편년을 시도하였으나, 대체로 두 견해를 종합하는 입장에서, 즉 구분문계에서 동일문계로의 변화와 시문면적의 축소화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宮本一夫 1986, 小原哲 1987, 安承模 1993, 韓永熙 1996, 林尙澤 1999a·1999b, 田中聰一 1999).

80년대 말 이후 서해안과 도서지방의 신석기시대 유적 발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료가 축적되었다. 우선 유적 성격에 있어서 패총유적 이외에도 그 동안 이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주거유적이 밝혀졌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확인되던 구분문계토기가 서해안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유적의 형성연대에 있어서도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통한 절대연대자료가 제시되면서, 단순히 동일문계토기 중심의 신석기시대 후기로 평가되어온 이 지역의 유적들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서해안식토기의 상한이 중기 후반으로 상향조정되거나(韓永熙 1996), 서해 도서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문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작업과 함께 각 유적간 교차편년을 통해 막연히 후기로만 일괄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서해도서 유적 중 그 일부를 중기 이전까지 소급시키고 있다(林尙澤 1999a·1999b).

그러나 서해안식토기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금탄리2식토기는 여전히 후기로 보고 있으며, 후기 후반으로 설정된 다치횡주어골문이 시문된 동일문계토기의 절대연대가 일부 유적에서 중기에 해당되는

3,500~3,000 BC라는 연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문양에 대한 가상적인 형식학적 방법론에 의한 편년작업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이다. 즉 토기문양의 차이를 시간적 차이로만 인식하고 선후관계를 규정하려고만 함으로서, 문양에 따른 토기형식 간 지역차를 간과하고 또한 유적의 점유방식의 차이에 따른 유물의 출토양상을 무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편년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존의 전·중·후 3시기구분을 대신하여 새로운 시기구분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존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의 문제점

1. 중기설정은 가능한가?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은 구분문계에서 동일문계로의 변화와 시문면적의 축소화라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양이 있을 경우 이들을 시간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三部位施文이 엄격히 지켜지는 區分文系土器를 전기, 삼부위시문의 붕괴 및 띠대문(금탄리1식토기)의 등장을 중기, 全面橫走魚骨文의 등장을 후기로 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중서부 신석기시대의 중기를 설정할 수 있는가?'이다. 중기 설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금탄리1식토기이다. 띠대문과 삼각잡선문, 횡주어골문이 교대로 시문된 금탄리1식토기는 금탄리에서는 오직 한 개의 주거지에서 다른 공반 양식 없이 출토된 것(김용간 1964)으로, 북한에서는 대동강유역 공산3기(중기)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보고 있다(김용남 1983, 서국태 1986). 그러나 분기설정의 주요한 지표유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탄리 7호주거지를 제외하고는 금탄리1식토기가 주류를 차지하는 문화층이나 주거지는 없다. 이에 반해, 인근 유적에서 금탄리1식토기와 소수 공반하고 있는 어골문과 타래문 등은 상대적으로 공산2기에서 4기에 걸쳐 긴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는 문양이다(김용간 1966, 김용남 1967, 고영남 1994). 이는 금탄리1식토기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중기설정의 한 요소로서 어골문과 타래문은 비교적 긴 존속기간을 지니고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는 반면, 중기설정의 중요한 요소인 금탄리1식토기는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곧 금탄리1식토기의 존속기간이 매우 짧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탄리1식토기를 지표유물로 하는 이 지역 중기는 하나의 분기로 설정될 만큼 길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金壯錫·梁成赫 2001).

그런데 중서부지역에서 제한적이거나 금탄리1식토기가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